

세계 디스플레이 · 부품소재 한자리에...

대구 컨벤션센터, 디스플레이 전시회 개막 ... 18개국 전문가 대거 참여

전자디스플레이(Display) 분야의 신기술 동향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이 될 <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 및 전시회(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)>가 8월23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개막됐다.

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, 미국 디스플레이학회(SID)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는 산업자원부와 대구시, 경상북도 등의 공동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전시회는 8월24-26일, 학술대회는 8월23-27일 열린다.

전시컨벤션센터 1-5층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6개국의 114사가 참가해 LCD(액정표시장치)와 PDP(벽걸이TV), OLED(유기발광다이오드) 등 주력제품과 차세대 전략품목들을 대거 선보인다.

뿐만 아니라 TV, 모니터, 휴대폰 등 세트제품에서 검사장비, 제조장비, 계측기기, 도광판, 배향막, 보호막 등 장비 및 부품·소재에 이르기까지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들이 총망라돼 전시된다.

삼성SDI는 2004년 초 개발에 성공한 세계 최대 크기인 80인치급 풀 HD급 PDP와 기존 브라운관 두께를 15cm 가량 줄인 초슬림 브라운관 시대 의막을 연 32인치 디지털TV용 <빅슬림(Vixlim) 브라운관> 등을 선보인다.

또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5000대1의 명암비와 1500칸델라(cd/m²)를 구현하는 42인치 PDP-TV를, LG필립스 LCD는 55인치 HDTV용 TFT-LCD에서 7인치 차량용 AV TFT-LC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TFT-LCD 제품을 전시한다.

특히, 컨벤션센터 3-5층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세계 18개국의 전문가 1800여명이 참석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신기술 개발 내용에 대한 36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다.

이밖에 주최측은 디스플레이교육관을 설치해 디스플레이산업의 역사 및 기술적 원리를 일반인과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함으로써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, TFT-LCD 모니터와 벽걸이TV용 PDP를 이용한 게임이벤트관을 개설해 참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8/24>